



 **곡성군**
GOKSEONG COUNTY

천태암



📍 주소 목사동면 대신로 381-336
 ☎ 전화 010-5039-0579
 ❤️ 추천 19

이용시간 연중개방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주차시설 : 있음 /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20 대 가능
 장애인시설 없음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천태암은 곡성군 목사동면에 있는 아미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의 말사이다.

천태암은 665년 해암율사가 창건하여 주석하였던 고찰로서 고려 명종 25년(1195)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자연석굴에 16나한을 모시고 법당과 요사를 중창하여 후학들을 제접하였다고 한다.

국사는 이곳 산세가 중국의 불교성지인 아미산과 닮았다하여 아미산 천태암이라 이름하고 산신각 위 벼랑에 형성된 대에 앉아 선정을 닦았으니 이곳을 보조국사 좌선대라 전해진다.

하루는 좌선대에서 나무새를 만들어 날려 보내니 조계산에 날아 앉는지라 지금의 송광사로 자리를 옮기고 직접 다리를 만들어 천태암과 송광사를 오고 갔다고 한다. 다리의 이름은 '토성칠교'로 오늘날에도 '토성칠교를 건너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왕생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동사열전에 따르면 석국 출신 용문처의 스님이 경신년(1806)과 신유년(1861)간에 곡성 천태암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근대에 동명선지 스님이 쓴 천태암중수화문에도 천태암 중수에 인연을 지을 것을 권하고 있어 천태암은 면면히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태암은 정유년(1957) 화재 때 전각 일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이어오던 중 호연스님의 원력과 신도님들의 불심과 사회 각계 뜻 있는 분들의 동참으로 갑신년(2004)에 다시 중창되었으며, 경자년(2020)에 전통사찰 제 97호로 지정받았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



★ 천태암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신로 381-336

010-5039-0579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 천태암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신로 381-

📍 대중교통길찾기

336

목록으로

COPYRIGHT ©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gokseong.go.kr/tour>)

Web Contents

